

### 국토부, 임대산단 조성 계획 전남 제외

# 지역 기업유치 '빨간불'

## 전남도 "균형발전 차원서라도 개발 필요"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임대산업용지'가 전남도에겐 앞으로 5년 동안 단 1건도 조성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전남도의 기업유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임대산업용지의 43%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면서 기업유치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는 물론 지방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중소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한국토지공사에 개발하는 산업단지를 임대산업용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산업용지 공급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매년 330만㎡씩 향후 10년간 모두 3천300만㎡

를 장기 저가(임대기간 10~50년, 임대료 연간 조성원가의 3% 수준)의 임대산업용지로 공급기로 하면서, 올 공급분으로 지역별 산업용지 수요를 예측해 14개 지구에 231만㎡를 배정했다.

14개 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개 지구 77만1천㎡로 가장 많고 전북 3개 지구 44만6천㎡, 광주 1개 지구 33만4천㎡, 경남 1개 지구 30만㎡, 충북 2개 지구 23만6천㎡, 대구 1개 지구 14만6천㎡, 경북 2개 지구 5만8천㎡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산업용지 수

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전남지역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은 올해 단 1곳도 임대산업용지로 배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총 28곳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는 '1단계(2008~2012년) 임대산업용지 공급계획'에도 빠져 있는데다 아직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향후 2017년까지도 배정을 장담할 수 없어 전남도의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날 박준영 도지사의 명의로 임대산단 공급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지역별 할당제 시행과 토공의 전남지역 산업용지 개발 참여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성명에서 "토공이 개발하는 저렴한 임대산단지가 없는 전남지역은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특히 조성원가가 저렴한 전남지역에서 임대산업용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대산농촌문화상 수상 강용 학사농장 대표

## "혁신적 농업경영 모델 창출"

강용(42)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 대표가 '한국 농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한다.

22일 대산농촌문화재단(이사장 정태기)에 따르면 제 17회 대산농촌문화상 농업경영부문 수상자로 강 대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다.

1992년 전남 장성에 학사농장을 설립한 강 대표는 전국 77개 농가를 생산자 네트워크로 구축해 개별생산단지를 규모화·전문화하고, '총 수확량 개념'에서 '총

매출개념'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해 혁신적인 농업경영 모델을 만들어냈다.

특히 강 대표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매년 6월2일을 '유기데이(62DAY)'로 제정,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농 종합타운을 설립해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주)C&우방ENC 대표이사에 박은규씨

(주)C&우방ENC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에 박은규 C&우방ENC 감사(48)를 선임했다.

신임 박 대표는 해남 출신으로 완도 노화중, 광주 석산고, 전남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1년부터

17년간 산업조합중앙회에서 직장 생활을 한 뒤 2007년 C&우방에 들어가 그룹 대외협력본부장, 감사실장 등을 거쳤다.

박 대표는 "공공기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에서의 역동성과 창의력을 접목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경부,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지원

## 광주·전남 5년간 한건도 없어

수도권은 656건 3천억 받아

광주·전남지역은 지난 5년간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단 한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22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10대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에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48건에 6천819억원을 지원했으나 광주·전남·전북·강원·제주는 한건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반면 수도권은 전체 지원건수의 77.4%인 656건에 2천940억원

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은 5건에 19억4천500만원, 대구는 4건에 20억5천100만원, 대전이 46건에 165억9천300만원, 울산이 11건에 69억4천300만원, 충북이 21건에 99억9천500만원, 충남이 62건에 343억9천900만원, 경북이 31건에 189억3천4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별 배분지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됐다"며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주건설 대표이사에 박영석·오용학씨

#### 그룹윤리경영실 신설

대주그룹은 22일 주력 계열사인 대주건설의 대표이사에 박영석 그룹전략기획본부장(사신 왼쪽)과 오용학 대주건설 관리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고, 그룹윤리경영실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업부문의 통합을 통해 금융불안과 경기침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곧 있을 그룹 전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윤리경영실을 신설, 준법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등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업체 ▲도·소매업 등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에 한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주건설 대표이사에 박영석·오용학씨

### 광주일보-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 강선숙 국악인 특강



2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제 36회 여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강선숙씨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위정림기자 jwii@kwangju.co.kr

## "소리를 통한 삶의 지혜 글로벌 경쟁에 큰 도움"

국악인 강선숙씨는 "판소리는 맛·멋·한 등 우리 민족의 정서와 애환이 녹아있는 예술"이라며 "외국인들에게 전혀 생경한 판소리가 지난 2003년 세계무용문화제에 등 록됐듯이, 여성 CEO들이 특유의 감성으로 무장해 블루오션을 개척할 경우 얼마든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2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 36회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강씨는 '소리를 통한 삶의 지

혜와 행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씨는 단가(短歌)인 '사철가'를 비롯해 '진도아리랑' '춘향가' 등 사랑이야기 등을 직접 부르며 객석을 압도했다.

강씨는 "우리 민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할 때나 또는 여성의 경우 시집살이를 할 때 언제나 소리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행복을 찾아왔다"면서 "기업경영에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소리를 흥얼거리며 여유를 찾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씨는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소리를 하는 동안 고수와 관객들이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추임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곧 소리꾼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씨는 "CEO 뿐만 아니라 조직원 모두가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조직 및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 늘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요 '진도 아리랑'을 구성지게 부른 강씨는 "제가 연간 100회 이상 강단에 서는 이유는 우리 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좀더 가까이하게 하려는 노력"이라며 "어려 CEO들이 만든 제품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소상공인 창업 자금 564억 지원

올해 하반기에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564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22일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상담 기능과 자금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등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업체 ▲도·소매업 등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에 한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지식센터 이틀간 '발명인식 제고 포럼'

광주지식센터는 23~24일 담양리조트에서 '2008년 범국민 발명인식 제고 포럼 및 유관기관 업무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

23일에는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표준조례 연구'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며 이어 주제발표에 따른 패널토의, 유관기관의 업무협력방안 토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PM(Patent Map·특허지도) 설명회,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현황보고, 특허스타기업 운영회의 등이 준비된다. 문의 (062)754~3841.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승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26 / 062-722-0100

10215300-9348